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그리폰 센서스(GRYPHON SENSORS)가 독보적인 드론 추적 시스템(DRONE TRACKING SYSTEM)을 개발했다고 발표**

**드론 보안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모바일 스카일라이트 시스템(Mobile Skylight System)**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의 주요 부분인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센트럴 뉴욕 소재 에스알씨 주식회사(SRC Inc.)의 그리폰 센서스(Gryphon Sensors)가 *모바일 스카일라이트(Mobile Skylight)*라는 최첨단 모바일 무인 항공교통 관리(Unmanned Traffic Management, UTM)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발은 이 지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무인 항공 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s, UAS) 산업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주지사는 무인 항공 시스템(UAS)의 혁신 및 제조를 위한 지역 허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센트럴 뉴욕에서 무인 항공 시스템(UAS) 산업을 지원하도록,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500만 달러 규모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러큐스에서 개최된 무인 항공교통 관리(UTM) 시스템 대회에서, 주지사는 시러큐스와 롬 소재 그리피스 국제공항(Griffiss International Airport) 사이의 50마일 구간에 대한 비행 항공교통 관리 시스템(flight traffic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기 위해 추가로 3,0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의 최첨단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뉴욕이 미국 전 지역에서 벌어지는 혁신과 하이테크 산업 전쟁의 최전선에 머물러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새로운 개발을 통해, 이 지역은 센트럴 뉴욕이 향후 여러 세대에 걸쳐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자리 만들기 및 경제 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될 드론 기술의 국가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더욱 굳건히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스카일라이트(Mobile Skylight)*는 드론 보안 및 무인 항공 시스템(UAS) 항공교통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자립 다중 스펙트럼 센서 어레이를 특징으로 하는 이 시스템은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저공 비행 중인 소형 무인 항공 시스템(UAS)의 정확한 3차원 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매끈하고 튼튼한 밴에 장착된

*모바일 스카일라이트(Mobile Skylight)*는 4x4 오프로드 성능을 갖춘 완벽한 이동 지휘 센터(Mobile Command Center)이며 상업용 운전 면허증 없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타디움, 특별 이벤트 보안, 긴급상황 대처자, 수색 및 구조 작전, 인프라 및 유틸리티 검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용도로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공개한 그리폰 센서스(Gryphon Sensors)의 미국 최초의 무인 항공기 관리 시스템(Unmanned Aircraft Management System)은 센트럴 뉴욕이 무인 항공교통 관리(UTM)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론 회랑지역의 구축, 지니어스 뉴욕 대회(Genius NY competition), 센트럴 뉴욕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Central New York Rising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한 우리 비즈니스 및 학술 기관들의 제휴로, 우리는 하이테크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현지 인력 양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폰 센서스(Gryphon Sensors)의 **Anthony Albanese**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미국 최초의 작전용 모바일 무인 항공 시스템(UAS) 항공교통 관리 및 드론 보안 시스템인 *모바일 스카일라이트(Mobile Skylight)*를 소개하게 되어 대단히 흥분됩니다. 뉴욕주의 독특한 무인 항공 시스템(UAS) 비행 회랑지역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Beyond Visual Line of Sight) 상업 및 보안용 무인 항공 시스템(UAS)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이 시스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다용도의 항공 감시 기능을 제공합니다.”

엠페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n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인 항공 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s)에 대한 주정부의 막대한 투자는 이 혁신적인 기술을 센트럴 뉴욕에 뿌리내리고 성장하게 하여 선도적으로 이 기술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뉴욕이 서도록 만들 것입니다.”

주정부의 3,500 만 달러 규모의 투자는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으로 개요가 잡힌 전략을 통해 이미 무인 항공 시스템(UAS)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사브(Saab),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에스알씨(SRC)와 같은 강한 지역적 항공 우주 기업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 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지정 무인 항공 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s) 테스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누에어 얼라이언스(NUAIR Alliance)와 같은 지역적 자산입니다.

시러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와 모호크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Mohawk Valley Community College)와 같은 교육 기관들도 이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는 요구를 중심으로 교육 커리큘럼과 연구 활동을 조정했습니다. 뉴욕주는 또한 최근 세계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육성 프로그램 중 하나인 지니어스 뉴욕 프로그램(GENIUS NY program)의 제 2 차전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인 시스템(Unmanned Systems) 및 데이터 의사결정 응용프로그램(Data to Decisions Applications)의 카테고리에서 사업 제안을 제공하고 센트럴 뉴욕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장 유망한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 중 몇 군데의 기업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Joseph A. Griff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호크 밸리에서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성장을 위한 위대한 잠재력을 이용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는 하이테크 산업을 통해서 우리 주의 상당한 투자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뉴욕 전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우수한 자산을 더 많이 활용할수록,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 지역 경제를 강화하며 미래의 대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추진력을 얻을 것입니다.”

**David J. Vale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님의 센트럴 뉴욕에 대한 투자 약속은 그리폰 센서스(Gryphon Sensors)가 지역의 성장하는 무인 항공 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s) 산업의 리더가 되는 것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현지 인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는 일도 도왔습니다.”

**Al Stirp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있는 우리 지역은 급성장하는 무인 항공 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s) 산업의 중요한 허브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흥분되는 발표는 바로 여기 그리폰 센서스(Gryphon Sensors)와 센트럴 뉴욕 전 지역에서 일구어 내고 있는 수많은 혁신의 훌륭한 사례입니다.”

**Anthony Brindisi**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 뉴욕과 모호크 밸리는 2 세기 동안 혁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다시 무인 항공 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s) 산업에서의 제조, 연구, 개발의 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 낸 협업과 그리피스 국제공항(Griffiss International Airport)에서 단행된 투자 덕분에 이 산업은 비상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행되는 작업은 새로운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민간 업계와 우리 지역의 우수한 단과 대학 및 종합 대학교의 참여로 기업을 분사시키는 일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오논다가 카운티의 **Joanie Mahoney**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의 공약은 이 지역을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성장하는 드론 산업은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센트럴 뉴욕 성장(CNY Rising) 계획의 핵심입니다. 약속한 것을 실행하고 여기 지역 차원에서 개발된 전략과 계획들을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 주지사님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폰 센서스(Gryphon Sensors)와 같은 기업들이 센트럴 뉴욕을 무인 항공 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s)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길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오네이다 카운티의 **Anthony Picente Jr.**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바일 스카일라이트(Mobile Skylight) 시스템은 그리피스 국제공항(Griffiss International Airport)과 시러큐스 사이 회랑 지역 개발의 또 다른 주요 단계입니다. 이는 모호크 밸리와 센트럴 뉴욕을 무인 항공 시스템(UAS) 혁신 및 제조를 위한 지역 허브로 확고히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그리피스 무인 항공 시스템(Griffiss UAS) 테스트 부지를 우리 지역을 차별화시키는 고유한 국가적인 자산으로 더욱 확고히 만드는 이 투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센트럴 뉴욕 지역경제개발협의체(Central New York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공동의장인 센터스태이트(CenterState)의 Robert Simpson 사장 겸 최고경영자 및 업스태이트 의과 대학(Upstate University Medical Center)의 총장인 Danielle Laraque-Arena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폰(Gryphon)의 모바일 무인 항공교통 관리(UTM) 시스템의 출시를 이 지역을 미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종합적인 50 마일 구간 작전용 회랑 지역 무인 항공교통 관리(UTM)의 본거지로 만드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것은 무인 민간 항공의 차세대 진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또한 기존의 풍부한 민간 부문 전문 지식 및 새로운 비즈니스, 일자리를 유치하고 이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잠재력을 통해 우리 지역의 자산, 자원, 역량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누에어 얼라이언스(NUAIR Alliance)의 Larry Brinker 임시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무인 시스템(unmanned systems) 분야에서 센트럴 뉴욕과 모호크 밸리의 글로벌 리더십 포지션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일원이자 무인 항공 시스템(UAS)을 미국의 상업 영공에 통합하는 데 중요한 시스템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파트너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역량을 확장하여 이 지역은 이 분야의 1,400 억 달러 규모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입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스카이라이트(Mobile Skylight) 유닛에 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여기](#)를 누르십시오.

지니어스 뉴욕(GENIUS NY)에 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여기](#)를 누르십시오.

###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 가속화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의 활용, 기업가 정신의 강화 및 포괄적 경제 창출 등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서 이 지역에 거의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성장하고 투자하기 위한 근거지로 시러큐스, 오스위고 및 오번 같은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태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가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창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5,9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